

지난해 가계 평균 소득 '최고' 감세정책 등 효과

지난해 미국의 빈곤율이 6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가계 평균 소득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미 인구조사국은 전날, 지난해 빈곤율이 전년보다 1.3%포인트 낮아 10.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195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이자 5년 연속 개선된 것이다. 빈곤율은 미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빈곤선'보다 소득이 낮은 인구 비율로 지난해 빈곤선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만6172달러였다.

지난해 가계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차례로 세웠을 때의 중간값)은 6만8700달러로 전년(6만4324달러)보다 6.8% 증가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196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케빈 해셋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낮은 세금이 경제 성장과 임금 상승을 이끌었고 소득 격차도 완화시켰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감세안을 통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0%로 인하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35.0%에서 21.0%로 낮추는 등 감세 정책을 펼쳤다. 감세안은 2018년부터 발효됐고,



▲ 지난해 가계 평균 소득이 최고를 기록했다. 사진=shutterstock

호황 국면에 있던 미국 경제를 더 가속시키는 역할을 했다.

가계 중위소득을 인종별로 보면 아시아인이 9만8174달러로 전년 대비 10.6%, 흑인이 4만5438달러로 7.9%, 히스패닉계가 5만6113달러로 7.1%, 백인이 7만6057달러로 5.7% 늘었다. 인종에 상관없이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이다. 빈곤율도 인종에 상관없이 전년 대비 모두 개선됐다.

인구조사국은 경기확장 초기에 소득 증대 기회를 놓쳤던 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지난해 특히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9% 증가해 다른 계층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대학 들, 코로나19 확산 중심지로 부상

대학이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천6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 결과 이달 둘째 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6천 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8만8천 명을 넘겼으며, 6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8월 말 이후 6만1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가을 학기가 시작하면서 수업이 재개되고 기숙사가 문을 열자 학교별로 수십명 수준이던 확진자가 수백명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초기 정육공장과 노인 요양원이던 바이러스 확산의 중심이 이제는 대학으로 옮겨갔다는 게 NYT의 분석이다.

일부 학교들은 가을 학기에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대면 수업을 시작한 대학도 늘어났다. 대학들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학생들이 등록을 꺼리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면 수업 진행을 약속하고, 독립 기숙사 제공을 비롯한 방역 대책을 제시하며 학교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예상 밖으로 높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실제로 뉴욕주립대는 2주 만에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학생들에 귀가 조치를 내렸고, 노트르담대도 지난 8월 10일 1만2천명 학생에게 등교하도록 했으나 감염자가 급증하자 8일 만에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리노이대는 4만 명의 학생을 상대로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결국 지난 주 봉쇄 조치를 시행했다. 또 네브래스카대학 링컨 캠퍼스에서는 대학 내 사적 모임을 금지했으나 감염자가 늘었으며, 캘리포니아주립대는 소수 학생만 등교하도록 허용했으나 확진자가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대학의 감염 확산이 지역 사회로도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생 인구가 1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대학 도시' 203곳을 NYT가 점검한 결과 학생들이 8월 돌아오기 시작하자 절반 이상의 도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상태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추적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확진자 통계를 작성 중인 데다 NYT 조사에 응하지 않는 대학도 있어 이번 조사를 근거로 학교별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NYT는 설명했다.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띠별 운세

9월 21일 ~ 9월 27일, 2020년

청해 역학 학술원(淸海 易學 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p>쥐</p>	<p>처음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서히 일이 풀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견뎌 내면 뜻밖의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삼가고 검소한 태도로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면 좋은 복록이 생길 것입니다. 명예와 재물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분수를 지키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말</p>	<p>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장애에 대한 전망을 충분히 세우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위하여 대비하고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주변의 협력자와 힘을 합쳐야 하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와의 거래와 교섭에서는 강경해보다 온건책이 유리하고 주위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소</p>	<p>서두르지 말고 착실하게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실력을 기르면서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면 불안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혹 어려움이 생기면 믿을 만한 윗사람인 동료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세요. 충음을 지키면 길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양</p>	<p>고기와 용이 넓은 바다와 강을 만난 격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양기가 왕성해지는 것과 같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며 좋은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도 매사에 너무 앞질러 나가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결단력과 순발력이 필요하고 교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범</p>	<p>스스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조용히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이 더 길합니다. 또한 땅이 만물을 포용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분수를 지키고 마음을 굳게 가지면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서남쪽으로 가면 좋은 협력자를 얻지만, 동북쪽으로 가면 잃게 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원숭이</p>	<p>지금은 실력이 있어도 환경에 적응하면서 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관망하는 자세로 실력을 배양하면 좋은 기회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한편, 변화하는 상황에 재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듯이, 주어진 상황과 때에 따라서 행동하면 길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토끼</p>	<p>반복되는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태평스러운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항구의 덕을 좇아 자신의 처소를 쉽게 바꾸지 않는 법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며, 허망한 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굳고 바르게 가져야 이롭습니다. 육신을 공경하고 넓은 덕을 쌓아야 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닭</p>	<p>지금은 미래를 위하여 차분하게 내면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상책이겠습니다. 특히 학문 연구나 시험 준비와 같이 차분하게 실력을 쌓는 분야에 종사하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덕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시기나 구설, 허물은 눈감아 주어야겠습니다. 나쁜 유혹이나 사기를 조심하여야 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양</p>	<p>뜻하는 바가 있으면 과감하고 공명정대하게, 합법적인 수단을 써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서툴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며,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매듭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소인배와 시비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쓸데없는 비방도 삼가야 하겠습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개</p>	<p>지금까지 하던 일을 재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새로운 일을 도모한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다시 봄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스스로의 실력 향상에 주력하고 내부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흐트러진 심신을 바로잡고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법. 경솔하게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돼지</p>	<p>가문 대지에 곧 비가 내리는 격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이치에 따라서 행동하면 길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준비 없이 무작정 일을 벌이면 소문만 크게 나고 실속은 없을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은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적인 충실을 기하고 안정을 취하면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	 <p>돼지</p>	<p>겉모습에 치중하게 되고,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하면서도 화려한 생활을 바라기 쉽습니다.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고 실속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계획하는 일은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밖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으로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냉철한 이성으로 앞일을 설계해야 합니다. 겉치레를 조심해야 합니다.</p> <p>금전○ 애정○ 건강△</p>